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회원이 되면

하나,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두울,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운영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집니다.

세엣,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가집니다.

네엣,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발행하는 소식지와 자료집을 받아볼 권리를 가집니다.

다섯,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여러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여섯, 자발적 회비 납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섭니다.

일곱, 자연친화적이고,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갑니다.

여덟, 가족과 이웃, 아는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2014. 1. vol. 3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 **퍼낸 곳** _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 **발행인 겸 대표** _ 강미연, 부대표 _ 심은선
- **사 무 국** _ 김미정, 박신연숙, 이지향, 이수화, 이경희, 성연진, 송란희, 천민영
- **운영위원** _ 강미연, 김소영, 권순자, 김애숙, 김영례, 박신연숙, 서민순, 심은선, 이경희, 이만재, 장미진, 전은영, 전종숙, 정수임, 천민영, 최순이, 하진용, 홍경의
- **편집위원** _ 이지향, 홍경의, 강미연, 박신연숙
- **전화** _ 02-825-7947 / **문자** _ 010-7788-7947 / **팩스** _ 02-823-7947
- **이메일** _ good7947@gmail.com
- **카페** _ <http://cafe.naver.com/good7947>
- **주소** _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279-243 백구주택 301호(156-845)

★ 카페나무

- **전화** _ 02-3280-7947(팩스 겸용)
- **주소** _ (156-840) 동작구 상도4동 187-3번지 2,3층

이 소식지의 저작권은 좋은 세상에 있으며, 모든 내용에 대한 임의 변경 및 복제를 불허합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자 2010년 2월 창립한 풀뿌리 시민단체이며,
이 책자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소식지로서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동작구 상도동을 중심으로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 대표 인사말
- 좋은세상 소모임 소개
- 음식물 쓰레기 처리
- 말.말.말(회원)
- 드롭인센터(나무) 소개
- 나무의 카페지기를 소개합니다(나카소)
- 좋은세상 축제
- 좋은세상 카페에선 무슨 일이?
- 회원 인터뷰
- 회원 편지
- 송년회
- 2014년 총회 알림
- 후원자 명단
- 2014년 키워드

2014년 총회 알림

2014년 2월 15일 토요일 10시 30분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총회가 카페 나무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사람들, 못 한 이야기...앞으로 나의 2014년은,
좋은 세상의 2014년은 어떻게 보낼 지 이야기 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

<카페 나무 오시는 길>

주소: (156-840)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187-3번지 2,3층

전화: 02-3280-7947

지하철 이용시:

7호선 장승배기역 하차 -> 3번출구 직진 100미터 -> 버스정류장 지나자마자, 진성부동산 2층 <카페나무>

주차공간이 없으니 대중교통이나 튼튼한 다리를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강미연입니다.

2010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여성의 힘으로 마을의 변화를 꿈꾸는 여성들이 모여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단체를 결성하여 활동을 해온지도 벌써 5년의 세월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마음이 모여져 함께 고민하고, 부딪히고, 실천하면서 무언가 이루어 졌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 그로인해 힘을 얻으며 힘든 일, 굶은 일 마다않고 애써온 활동가와 회원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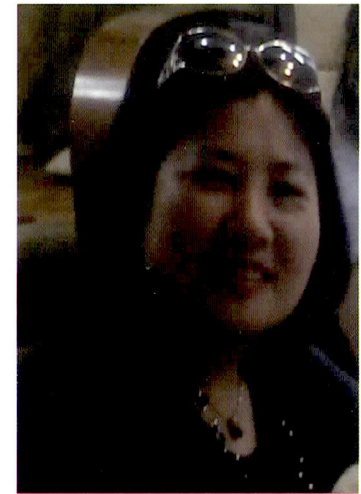
모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함께 뜻을 모아 매월 정성을 모아주시며 응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회원 분들이 없었다면 저희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모로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2014년 2월 정기총회를 즈음하여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소식지 3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또한 우리들의 활동이 만들어낸 알알이 맺혀져 가는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의 변화를 추구하며, 마을 속에서 생태, 환경, 안전, 성교육, 성인지 모니터링, 젠더 거버넌스,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맺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등 여성의 삶에 있어서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생성하고 실천하여 왔습니다. 또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채로운 활동과 더불어 회원들을 배가시키며, 마을 속에서 사람중심의 가치를 고양시키며 재미있고 살맛나는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며, 사람중심의 마을 속 의제를 생성하고 실천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회원여러분들의 참여와 애정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을 속에서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의 변화를 꿈꾸며, 마을 속에서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갈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강 미 연 배상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에는 어떤 모임들이 있을까요? 2013년 다양한 모임들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만나 볼까요?

무지개모임:

월 1회 직장인들의 저녁모임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갖는 즐거운 수다 시간!



꽃씨모임:

이웃과 어우러지는 꿈틀이 텃밭 가꾸기

천연화장품 · 천연치약 만들기, 텃밭 가꾸기 등 초록마을을 위해 다양한 활동 중!
그린이웃실천단 교육 시작!



발도르프 모임:

발도르프 교육철학을 공부하고
발도르프 인형을 만들며
소통하는 모임



틴모빌:

십대거리상담활동

거리에서 위기청소년, 학업청소년들을 만나 성, 친구관계, 고민 등을 나누고 함께 하는 틴모빌!
6기 자원봉사자 수료식 쌤들!



까치산 Happy virus!!!:

부모커뮤니티를 위한 예술활동, 놀이활동, 발도르프교육철학을 통하여 부모 자녀간의 소통텃밭활동

행복한 가정과 마을, 함께 하면 어렵지 않아요!
함께 떠난 비전투어



생태수업팀:

생태동아리& 생태수업

생태와 관련된 수업을 다양한 학교 친구들과 함께!
장승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수업!



안전마을팀:

동네한바퀴-안전마을 만들기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교육도 같이 듣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우리 동네의 안전은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도시농부:

흙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도시에서 농사짓기 어렵지 않아요!
도시농부 교육을 마치고 경작 실습하러 고고씽!



보라들 보기:

여성정책 모니터링,
성인지예산운동, 의회방청

쌤들은 지금 지역정책 모니터링 중!



십대 댕대모임:

십대 커뮤니티 모임으로
교육활동, 정기모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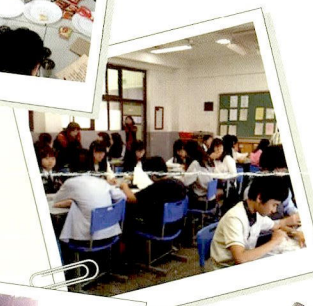
여성플라자에서 생명사랑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



성교육수업팀:

성교육, 폭력예방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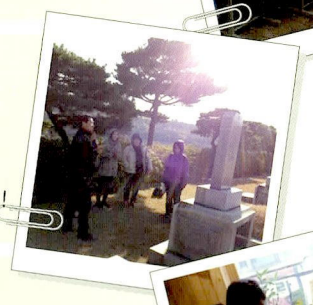
미성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 폭력 예방수업



민들레모임:

책, 문화 모임
책과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

김학규 선생님과 현충원을 방문하여 동작구 역사에 대해 열공!



맛장모임:

슬로우푸드, 옥상텃밭, 된장, 고추장 담그기

사시절기 때마다 신선한 음식을 함께 만들며 배우고 나누는 모임



타로모임

란희쌤과 함께 하는 타로 공부!

타로를 통해 인생여행의 힘든 부분을 지혜로 극복하고 사람을 알아가는 환상의 타로여행을 함께 합니다!



약손강좌모임

약손 명강사와 함께 공부하며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모임!

반장님은 양영심 선생님이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회원 명단

감사합니다!!!

□ 2013년 정기회비 내주신 분 (총147명)

강미연, 강성자, 강신천, 강태구, 강희용, 고영근, 고영희, 고예지, 곽복희, 곽지연, 구은경, 권경희, 권순자, 김경자, 김금애, 김문주, 김미경, 김미정, 김보선, 김보연, 김상미, 김성환, 김소영, 김소영, 김수은, 김애숙, 김연이, 김영례, 김영림, 김영아, 김영임, 김영자, 김영준, 김은희, 김재욱, 김정진, 김지연, 김지용, 김현정, 김혜련, 김희명, 남기은, 노미현, 류경주, 문명자, 박계현, 박난숙, 박범철, 박신연숙, 박언주, 박영이, 박지훈, 박진태, 박혜숙, 배화정, 백민호, 백혜숙, 서민순, 서수진, 서영희, 서울남부두레생협, 성연진, 손화정, 송란희, 신선희, 신정식, 심기식, 심용선, 심은선, 심호진, 안경준, 안초롱, 양명자, 양미경, 양승렬, 오나경, 오선옥, 오세자, 오수연, 오점란, 오현진, 유정선, 유정은, 유홍우, 윤박경, 윤우현, 이경희, 이리아, 이무성, 이미형, 이미혜, 이민재, 이병호, 이수정, 이수화, 이순배, 이승홍, 이은선, 이은행, 이은희, 이은희, 이종찬, 이지향, 이현미, 임동선, 임종금, 임춘희, 장경희, 장미진, 장순옥, 장지연, 장지호, 전명옥, 전병현, 전은영, 전종숙, 정교선, 정상문, 정수임, 정영구, 정한상, 정희령, 조은숙, 조은순, 천민영, 최순이, 최자은, 최정은, 최진현, 하지는, 하진용, 한경선, 홍경의, 홍은희, 홍창의, 황경미, 황윤하, 황은정, 황정옥(총139명)

□ 계좌입금 회원

강은경, 류후남, 안선희, 오준환, 이진현 (총 5명)

□ 십대 회원

이선미, 이규민, 이권민 (총3명)

반갑습니다!!!

□ 2013년 신입회원 명단

김문주, 김영준, 김경근, 김수환, 김영임, 구은경, 김혜련, 류후남, 박영이, 박운영, 배화정, 백혜숙, 송란희, 성연진, 임동민, 윤박경, 윤우현, 양승렬, 오선옥, 이은희, 이예슬, 이지향, 유정선, 임춘희, 유홍우, 오현진, 장경희, 장서연, 정영구, 장지연, 장지호, 최선영, 최정은, 최자은, 최진현, 하지는, 황정옥, 황은정(총 38명)

□ 2014년 신입회원 명단

김현명, 서동희, 신정식, 오종길, 이수정, 양영심, 최희경(총 7명)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세상'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입니다.

회원은 매월 1만 원 이상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일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재미와 보람을 누리시리라 믿어요. 회원들이 함께 꿈꾸는 좋은 세상의 활동들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소문도 내주세요. 마을에서 함께 할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좋은 세상은 지정기부금(코드40)단체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001-334119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주력 활동 1탄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까?

곰통이가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양질의 비료와 탈취제도 된다고요?

물론이죠! 지렁이 화분을 이용하면 남은 음식물도 처리하고, 지렁이똥인 분변토가 양질의 퇴비가 되기도 하고, 탈취제로도 활용 할 수 있다는 사실!

실지렁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렁이가 살기에 적당한 날씨는 서늘하고 따뜻한 봄, 가을!

-여름철에는 너무 더운 곳을 피해 시원한 그늘에 둔다!

-겨울철에는 온도가 20도 내외인 곳에 둔다!

-지렁이가 있는 곳의 흙은 촉촉한 상태나 약간 부슬부슬한 상태가 좋다!

지렁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과일껍질, 채소껍질, 감자, 토마토, 밥등 간이 베지 않은 음식찌꺼기

지렁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표: 지렁이의 음식분해 시간

구 분	50% 처리일	100% 처리일
수박껍질, 토마토, 냉면	2일	5일
밥, 된장찌개, 열무김치, 사과+오이껍질, 참외껍질	3일	5일
사과껍질, 닭튀김	4일	5~6일
국수, 화장지, 신문용지	5일	7일 이상

풀씨모임으로 오세요!

이웃과 어우러지는 곰통이 텃밭, 함께해요!~

맛.맛.맛!

❤️틴모빌 6기 유정선

지인에게 개인적인 여건상 청소년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고충을 말하자 저에게 십대를 위한 거리 상담이 있다면서 자원 활동가를 모집한다고 하니 한 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신청해서 사전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거리 상담을 하러 신림역을 갈 때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면서 많이 긴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했던 활동의 시나리오는 "가출한 아이들을 만나서 거리는 위험하니 안전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충고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도움을 주고 뿌듯함을 느끼자는 것이었는데 첫 날 저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림역을 지나가는 중, 고등학생에게 빵을 주고 같이 게임을 하는 등 상담이 아닌 그냥 놀이에 치중하는 모습, 그리고 참여하는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학원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로 활동가의 도움이 그리 필요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대 다수여서 당황했습니다. 2,3번 활동을 한 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 후 내린 결론은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저의 착각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던 활동은 자원 활동가의 범위가 아닌 TV에서 본 여러 전문가들이 몇 달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전환을 하고 신림역을 나갔을 때 팸플릿을 주면서 틴모빌에 대해 설명하면 이상한 아줌마로 보면서 경계하는 아이들도 많은 데 팸플릿을 보고 부스로 와서 빵도 먹고 게임도 잠깐이지만 하고 가는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목요일 활동이 "부담스럽다" 에서 "즐겁다"로 변화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십대포래모임 장명수

올해의 포래모임은 큰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다. 드롭인 센터 나무 준비 팀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여러 축제 활동에서도 많은 참여를 하였었다.

또 포래모임 활동으로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 대회에서 입상하는 활동가도 나왔으며 새로운 활동가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포래모임에 대해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활동가들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은 즐거워 할 일이었지만, 그만큼 활동하지 못한 활동가들도 많았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다. 게다가 작년에 비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며 부디 내년에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여 포래모임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보라돋보기 배화정

정책이 폐쇄적이고 공무원이 기획해서 실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민의 눈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정책이 이루어지는 지 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지점을 파악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음. 채널이 생겼다는 것, 프로그램의 수혜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내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음.

❤️민들레 모임 심은선

민들레 모임은 폭력예방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강좌 이외의 시간에 매주 만나 여성주의, 폭력예방, 성교육과 관련된 책을 읽으며 역량을 쌓고, 지역에서 축제가 있을 때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는 좋은 세상의 소모임입니다.

2013년에 제가 모임을 맡으며 소수 정예, 회원 100% 확보를 계획했고, 책은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그간 <나는 런던에서 사람 책을 읽는다>, <몸, 태곳적부터의 이모티콘>,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청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금을 받아 김학규 선생님을 모셔서 동작구 역사알기, 현충원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나인에서 <인더하우스>, <미스터 노바디> 영화를 보았지요.

민들레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이고요, 장소는 나무 카페, 백구빌라, 영화관 등 다양합니다. 책을 읽고 싶은데 짤이 나지 않아 못 읽는 분들, 문화와 멀어져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분들, 만남이 그리운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에는 소모임만 있는 게 아니죠?! 카페를 겸한 드롭인 센터, 나무는 어떤 곳일까요? (NA는 MU지 사랑스러워!)

여러 가지 문제로 집을 나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나무가 2013년 2월 탄생했습니다!
신림역 포도물 앞에서 '틴모빌'이란 거리 상담을 하면서 일시지원시설의 필요성을 느낀 것을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드롭인(Drop-in)이라고도 하는 일시지원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십대라면 누구나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으로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가 지원합니다.

나무에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출해서 돈이 없고, 쉴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쉼터나 센터 등 안정적인 곳에 연계해 범죄나 성매매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무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 식사, 세탁, 샤워, 의료지원, 인턴십 연계, 쉼터 연계, 상담
- 카페에서는 휴식과 무료 음료이용, 상담 등
-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해 거리 상담을 하고 경찰서, 쉼터, 상담소 등 지역에 있는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010-7788-7947로 연락주세요
아이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선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4년에도 나무의 활약은 계속 될 예정입니다!~! 주~욱!

심대 인터뷰

-단호박-
Q. 나무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제가 가출했을 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알게 됐어요.

Q.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지?
배고플 땐 밥도 주시고, 간식도 주셔서 좋았어요. 가출해서 잠을 많이 못 잘 때 잠 잘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시고, 힘들 때 고민도 편한 분위기로 들어주셔서 많이 위안이 되었고, 위축될 때 힘을 얻었어요! 지금도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울 땐 상담 받으러 찾아가게 되는 곳이에요.

Q. 앞으로 나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항상 바라는 거지만 노래방이 생겼으면 좋겠고, 제가 상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많이 놀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ㅋㅋ

단호박! 인터뷰 고마워요!

카페에는 무슨일이?

✔모글 수 1위 글!
물봉봉 봉이 왔어요!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봄소풍! - 작성자 <림>

✔편수 1위 글!
연극<여보 나도 할말 있어> 관람했어요 - 작성자 <루씨>

✔방문 수 랭킹 1위!
보리, 림, 옥아이

✔게시글 수 1위!
보리, 루씨, 최강sk

✔모글을 가장 많이 적은 사람!
보리, 늘보, 루씨

2014년에도! 온라인, 오프라인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

나.카.소!

나무의 카페지기를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의 자원 활동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환영!
(카페 사정에 의해 카페지기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10시- 오후3시						오후1시-오후10시30분	
오후3시- 오후10시30분							

2013년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삶나는 축제!

2013. 7. 19. <꿈틀이 마을축제>(장소: 도화공원)
-꿈틀꿈틀 귀여운 지렁이와 함께!

2013. 9. 27 <썸데이 축제>(장소: 신림동 도림천)
-청소년들의 신나는 축제! With 직업체험

2013. 10. 26 <지키자데이 축제>(장소: 도화공원)
-우리 모두 안전한 마을을 위해서!

많은 분들과 기관이 축제에 참여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축제였고, 미흡한 점도 많았겠지만 이 또한 축제의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알찬 축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많은 기관과 주민들의 참여해 더욱 재미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NEW 회원 인터뷰

이름: 서동희
사는 곳: 동작구 상도동
좋은세상 가입: 2014년 1월



Q.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가입 하셨는지?
동작 숲 아카데미에서 8년 간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보리(박신연숙)선생님도 알고 있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세상에서 도시농부 4기를 하면서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Q. 관심있는 분야는?
생태, 만들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생태적인 만들기를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Q.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보리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참여하고 싶지만 너무 많이 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 가지 분야에 참여해보고 싶고, 2014년에 새로 시작하는 텃밭 강사양성과정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텃밭 가꾸기에 참여해 보고 싶어요.

Q. 하고 싶은 말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4,50대 회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랑 비슷한 연령대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있으면 좀 덜 외로울 것 같아요.

카페에서 뵈었을 때 커피 드시러 오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회원이 되어서 정말 반가웠고요. 저도 새로 가입하신 분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은 처음이라 좀 떨리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부담 없이 즐거운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지향-

회원의 편지

-홍경의-

지난 몇 년간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딸을 낳고 기르며 책을 쓰고 밥을 지으며 살았네요. 돌아보면 부족한 엄마의 소홀함처럼 미안하기도 하고, 멋진 녀들의 우렁찬 함성에 뽀듯해하기도 하였어요. 딸을 여성들과 소집고 10대를 품어 도약인 보람된 시간이었지요. 물론로 언제나 함께 하지는 못했어도 마음은 늘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가운데 있었답니다.

2014년 제 키워드는 '다시 여성의 꿈으로 돌아가자'예요. 좋은 세상에 대한 바람과 제 개인적인 소망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첫 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NGO단체로서 모습과 역할은 자리를 잡은 듯해요. 하지만 이즈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짚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배가 우리 구성원들이 바라는 대로, 또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 또 배를 탄 우리는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열망은 달라졌는지,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등, 처음 여성의 꿈을 돌아가 되짚어볼 시점이라 생각해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삶과 꿈을 이야기하는 새 책을 쓰려 해요. 좋은 세상과 함께 글을 쓰며 성장해온 저로서는 괴담집 마루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려는 듯 설합니다. 다시 여성의 꿈으로 돌아가 더불어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 우리는 참 멋진답니다!

안녕! 2013년! 송년회

많은 분들이 이번 송년회에 와주셨는데요.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모임 별로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
그 에너지가 사진 속에서도 바구마구 느껴지네요.
이번에 심대포레모임의 장명수 군이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어요! 짹짹!
좋은 세상에서 소정의 장하금을 증정을 했고요. 명수 군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
2013년 모두모두 정말 수고 많았구요. 2014년도 즐겁게, 그러나 너무 바쁘지는 않게 보내면 어떨까요? 마음의 여유는 꼭 챙기면서!
그럼 2014년 송년회 때 또 만나요 제발~



회원 여러분들의 2014년 키워드

강미연 ...여유롭게 천천히 그러나 앞으로 전진!

심은선 ...말, 의사소통

김미정 ...두 발을 풍덩 빠트리자

이미혜 ...자연과 더불어

고예지 ...물 흐르듯이 조용히 살자

이민재 ...직면으로 평화만들기

김영준 ...신비와 저항

이지향 ...인생 탐험가

김영자 ...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유정선 ...토닥토닥

김애숙 ...도전

이은희 ...운유(부드러움이 이긴다)

박신연숙 ...평화롭게 살자

윤박경 ...여성,생명,영성의 오래된 새길, 열정과 냉정 사이

배화정 ...도전

하지은 ...꾸준함

박범철 ...지치지 않는 따뜻한 삶

홍경의 ...다시 여성의 꿈으로 돌아가자

송란희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출발

황은정 ...결혼